



쿨런그린마라톤 대회 참가한 한국불자마라톤 동호회 표정

## 禪과 달리는 하나! 한마음으로 달려요~

“가만히 서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출발 직전까지 계속 움직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진행자의 준비운 동 구령에 노랑, 빨강, 파랑 형형색색 복장의 인파가 일렁인다. 제자리 뛰기를 하는 사람, 목과 어깨를 돌리는 사람, 팔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통통 뛰는 사람 등 웃색깔 만끽이나 움직이는 모습도 가지각색이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완연한 봄날, 파주 임진각에 1만2000여명이 모였다. 4월 13일 열린 제1회 쿨런그린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마라토너들. 그 중 한 무리의 등판에 쓰인 ‘주선일미(走禪一味)’와 동자승 캐릭터가 눈에 띈다. 한국불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 회원 20여명이다.

한국불교마라톤동호회(이하 한불마)는 2005년 3월 5일 창립했다. 이용권, 이재정, 공훈배 등 마라톤을 좋아하는 불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했던 것. 창립 후 2005년 3월 13일 동아국제마라톤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곳이면 한불마 회원들은 달렸다.

한불마는 현재 70여명 회원이 다음 카페(cafe.daum.net/hsjung1959)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정해선 회장(50·관세사무소 근무)은 “한불마는 불교를 좋아하고 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한불마 회원들은 대회마다 평균 20

여명 회원들이 참가하며, 매주 수요일 저녁 남산에서 훈련을 한다. 달리기 힘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사찰에서 철야정진을 하며 신심도 다져왔다.

한불마 회원들의 등마다 쓰인 ‘주선일미’는 ‘선과 달리가 하나’라는 뜻. 창립범회 때 총무원장이던故법장 스님이 준 문구다. 정해선 회장은 “깨달음을 목표로 힘든 고비를 넘기는 참선이나 숨이 넘어갈듯 한 고통을 참고 도착점을 향해 달리는 마라톤이나 매한가지 아니겠나”며 웃는다.

취미 삼아 참가하는 마라톤이지만 수준급 실력을 갖춘 회원들도 많다.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3시간 이내 완주하는 ‘서브3’급 회원만 4명이다. 하지만 달릴 때는 모두가 하나다. 초심자와 4시간이내



2005년 불교와 뛰는것 좋아하는 이들이 함께하기 시작 '수행 열심히 한다' 소문에 몇몇 회원들 TV에 소개도 돼

한국마라톤불자동호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해선 회장(010-5398-1279)

완주하는 ‘서브4’급 회원 등 각자 근기는 달라도 모두 한마음으로 달린다.

한불마 회원들은 수행생활도 열심히 한다. ‘자비도량참법기도’ 등을 1년에 2~3회씩 한다. 열심히 수행한다는 소문에 SBS에서 ‘108배, 0.2평의 기적’ 촬영 당시 몇몇 회원의 절수행이 소개되기도 했다.

김희준(51·개인택시업) 회원은 차람에 금동불상을 모시고 다니며 포교활동을 한다. “개신교인이었지만 우연한 인연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는 김씨는 홀로 불교 공부를 하다 정법의 목마름에 조계사 사이버대학까지 다닌다. BBS 등에 한불마 홍보도 열심히 김씨는 “마라톤은 자기 고행이며 수행이다. 부처님을 스승 삼아

일생을 멋있게 살고 싶어 불교를 배웠고, 달리는 것을 수행인줄 알고 뛰다”고 말했다.

한불마 창립멤버인 윤정열(55·대한케이볼 전무) 회원은 고교시절부터 사찰 청년회 활동을 해온 불자다. 하루 세 번씩 <반야심경> 사경을 10여년 가까이 해온 윤씨는 마라톤으로 자신을 다지며, 1만일 회향을 목표로 정진 중이다.

이선주(42·LG전자 근무) 회원은 다이어트 삼아 뛰기 시작했지만 2년여만인 올해 3월 16일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머리를 올렸다’(마라톤 풀코스 첫 완주에 대한 표현) ‘힘들었지만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뛰어준 연대들, 유정열 회원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밝게 웃는 이씨의 모습은 한불마 회원들의 캐릭터인 동자승을 닮아 있었다.

진행자의 선창에 맞춰 1만2000여명이 한목소리로 외친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탕!” 소리와 함께 불꽃 터지듯 출발선을 박차고 달려 나가는 사람들 속에 동자승이 환하게 웃는다. ‘주선일미’를 실천하며 신심으로 하나된 불자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인들의 발걸음은 더없이 경쾌하다.

글=조동섭 기자 ceta@buddho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opia.com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안양불교문화원·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중지를 봉  
 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무 동참하시어 무  
 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  
 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功德비에 이름을 새겨 매  
 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연심회  
 신축불사상담 **1588-1936**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